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 통큰 결심
건설부문 임직원 임금 12% 인상

“앞으로도 임직원들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를 통해 대기업 반열

에 오르게 된 만큼, 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 기여 차원에서 특별 추가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며 “건설부문 임직원들에 대해 올 초 10% 임금 인상에 이어 5월부터 12% 특별 추가 임금 인상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 추가 임금 인상분이 5월 급여부터 바로 적용되면서 올해 중흥그룹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평균은 본사 관리직 기준 약 4800만 원, 현장 기술직 약 5280만 원 수준이 된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회사 성장에 힘써준 임직원들에게 노고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대기업 위상에 걸맞은 임금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경영진들의 결단으로 이번 특별 추가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흥그룹이 인수한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올해 임금 평균상승률 10%에 노사 간 최종합의를 마쳤다. 이는 대우건설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중흥그룹은 인수단계에서 대우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직원 임금을 3년 내 업계 3개사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신입 대표에 최익훈 내정



최익훈 대표 내정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최익훈 HDC아 이파크몰 대표를 신입 대표이사에 내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신입 대표는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HDC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새 성과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왔다. HDC웹스(구 HDC아이콘트루스)의 코스피 상장과 부동산114의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주도하고, HDC아이파크몰의 전면 재단장 등 복합상업시설의 개발·운영 경험까지 갖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부동산 및 유통 분야의 종합적 경험을 바탕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기업 가치를 높여갈 적임자로 기대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규 사장과 하원기 전무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사교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신설된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추진팀에 전념키로 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아파트보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주거형 오피스텔 서울 동대문구에 우뚝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 내달 분양

전용면적 74㎡ 총 162실 규모
4베이 평면설계…가족 거주 딱
도보거리 5호선 장한평역 인접
주택 수 등 상관없이 청약 가능

서울 등 수도권은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 젊은 수요자 층에서는 선톡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여전히 대출의 턱은 높고, 금리 역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길을 끌만한 매력있는 오피스텔이 시장에 나온다.

현대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4-1, 2, 8번지 일원에 들어설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를 6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74㎡ 총 162실 규모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는 지상 2층~지상 19층에 위치해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상품을 원하는 젊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는 이미 검증이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같은 장안동에서 현대건설이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성황리에 분양을 완료했다.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는 도보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이 위치해 광화문과 여의도를 환승 없이 갈 수 있다. 시청(약 24분) 및 강남(약 31분) 등 주요 업무지역까지 편리한 대중교통 출퇴근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한 광역교통망이 있어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도 쉽다. 주요 간선도로 이용 시 서울 전역으로 접근이 수월하다.

주요 도심권역인 장안동에서도 메인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 투자 가치가 큰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가 6월 선을 보인다. 청약통장 유무 등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 합산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사진제공 | 현대건설

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한 만큼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한양대병원, 장안동 먹자골목, 홈플러스 동대문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다. 도보거리에 안평초, 장평중, 동대부중·고 등이 있어 교육여건도 좋다. 장평근린공원, 장안근린공원, 답십리공원, 배봉산둘레길 등의 녹지 시설도 풍부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가 들어서

는 동대문구 지역은 각종 개발호재가 계획되어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경전철 면목선이 개발을 앞두고 있다. 해당 노선이 개통하면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30분 내로 도달이 가능해 지역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성동구 용답동 234 일대)를 도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현대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1979년 개장한 이센터는 노후화된 건물을 허물고 재개발해 ‘자동차+문화 융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라이프스타일 리더’를 표방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처럼 4베이 평면설계가 적용돼 가족 단위 거주에 적합하다. 공용 욕실에는 세면 공간과 화장실을 분리해 공간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건식 세면대가 적용된다. 74㎡A 타입(45실)은 다락구조로 설계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고, 74㎡B 타입(117실)은 2.6m의 높은 천장고(거실 우물천장 기준)로 우수한 개방감을 확보했다. 수납공간으로는 대형 신발장, 주방 키친장, 드레스룸 등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공간 활용도도 자랑한다.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는 동대문구 장안동 최중심에 위치해 다양한 상권 및 편의시설과 인접한 데다 아파트에 버금가는 평면을 갖춰 실거주 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며 “여기에 아파트에 비해 주거형 오피스텔이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장안 라보니타의 견본주택은 동대문구 용두동 14-4에 마련된다. 분양문의 1577-4665.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쌍용건설, 부산 온천동 공작맨션 탈바꿈 시킨다

516억 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리모델링·도시정비 등 공격적 행보

리모델링과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쌍용건설이 부산에서 연이어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쌍용건설은 21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1376-5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공사비는 516억 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작맨션은 지하 3층~지상 27층 2개동, 총 175가구의 ‘더 플

래티넘’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사는 2024년 3월 착공 예정이며, 조합원들은 뺀 11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수주한 온천 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6m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 단지로 쌍용건설이 두 사업 모두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총 5개 동 440가구 규모의 중형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리모델링,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한 쌍용건설은 지난해 3월 경기 광명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수주를 시작으로 5월 서울 송파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부산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

부산 온천동 공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
사진제공 | 쌍용건설

업, 6월 경기 안양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9월 부산 온천 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 10월 서울 흥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릴레이 수주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부산 월성맨션 소규모 재건축을 맡기로 하는 등 총 1조56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부산에서만 누적 2만 가구의 공급 실적과 ‘더 플래티넘’ 선호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동안 총 4개의 정비사업을 수주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25일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위주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는 두 트랙 전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적극 발굴해 더 플래티넘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도시정비 분야에서만 전국에서 약 4조3500억 원, 총 31개 단지 약 2만7500가구의 사업을 확보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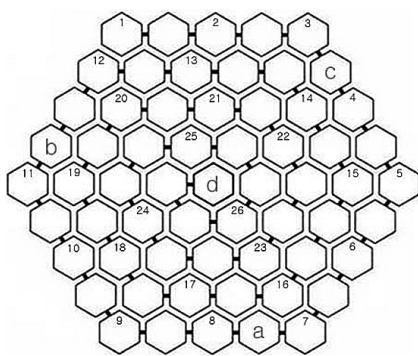
	7	9		2		8	1	
				5		1		
5				9				2
	8			5			2	
2		5	1		9	6		7
	1			3			8	
4				1				6
			9		3			
9	8		6		2	3		

		2				8		
4			1		5			6
6	8			7			9	5
		7		3		5		
3			8		2			7
		6		4		1		
7	6			2			5	1
1			4		6			9
		4				6		

■ 스도쿠정답

7	6	2	9	8	1	5	3	4
8	5	1	4	7	6	2	9	3
9	4	6	2	1	8	5	3	7
6	8	5	1	2	7	1	9	
4	7	9	6	8	1	5	3	2
1	2	6	7	5	9	4	8	6
2	9	7	8	6	5	1	7	9
6	8	7	1	4	5	9	2	8
5	1	8	9	2	7	6	4	3

■ 낱말문제



01.조선 때,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던 관청. 02.앞일에 대한 순조로운 빌미를 뜻함. 03.운동 경기에서,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 내는 일. 04.먹기 위해 특별히 살이 찌도록 기르는 소. 05.가랑잎이 떨어져 흩어지는 모양. 06.수영을 하기 위해 설치한 곳. 07.가로막

아서 거저적거리게 하는 사물. 08.헤엄칠 때 발로 물 위를 잇따라 치는 일. 09.높이 300m미만의 완만한 경사면과 골짜기가 있는 지역. 10.보행을 도우려고 짚는 막대기. 11.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함. 12.웃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13.천하를 두루 다니며 구경함. 14.계급이나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옳음. 15.화살을 맞아 혼이 난 새처럼 공포를 느낌의 비유. 16.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그린 그림. 17.짚·피를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18.남의 머리털을 깎아 다듬는 직업. 19.크게 부르짖어 열변을 토함. 20.다른 나라보다 문물이 뒤진 나라. 21.국가적으로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날. 22.한 마

디의 말과 한 구절의 반. 23.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 냄. 24.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외진 곳. 25.경솔하고 망령되게 행동함. 26.같은 병의 환자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품 다음 a~d 칸을 이어놓으면 식물의 이름이 됩니다.

